

# Style 1 조선일보

AUGUST 2021  
vol.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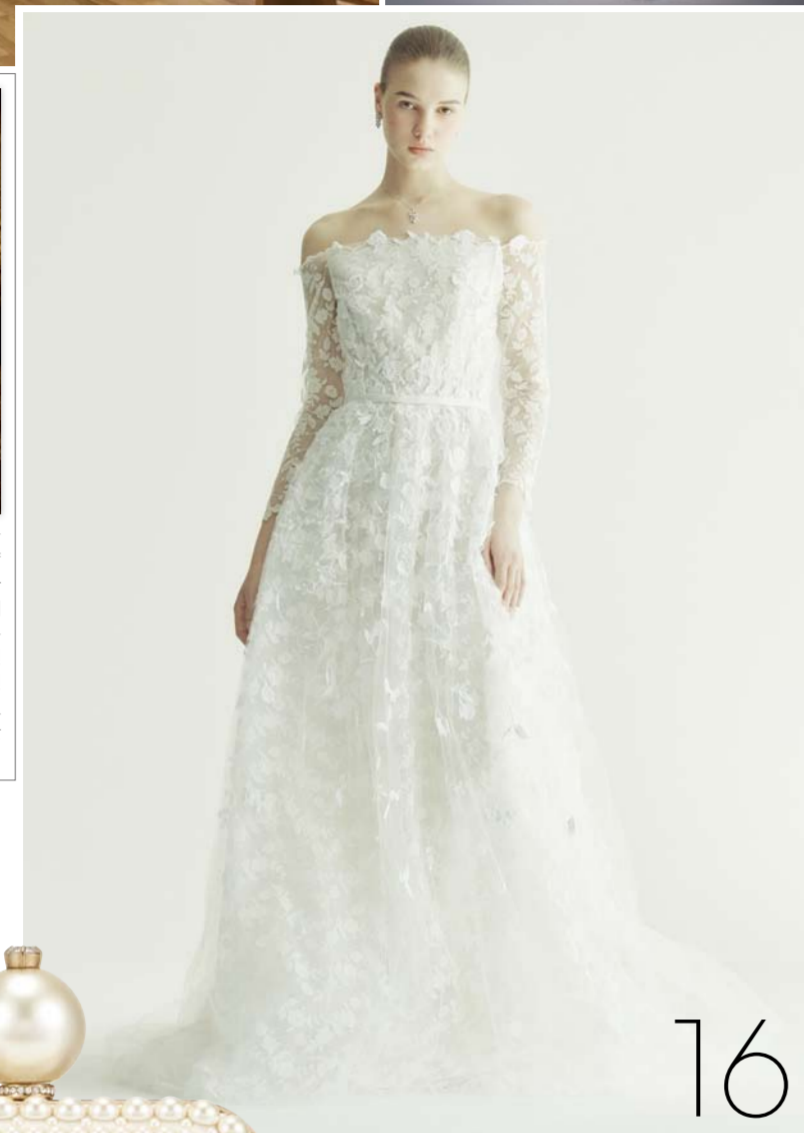
POIRET



LOVE  
*Cartier*



1903년, 폴 보아레(Paul Poiret)는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 하우스를 설립하고 패션을 비롯해 향수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세기의 여성들과 교류했다. "여성의 수만큼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이어 재탄생한 오트 쿠튀르 브랜드 보아레(Poiret)는 여성 개개인의 신과 색, 광채를 강조하여 예측할 수 없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향한 여성,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한 사람만을 위한 아름다움을 제안한다. 문의 02-310-5025



08

16

- 11 **DANDY SLIM** 세련되고 우아한 셔츠 실루엣을 완성해줄 드레스 워치.
- 12 **THE COLLECTIONS** 이 정도면 '신드렐라'라고 해야 할까. 올 들어 미술계, 아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단연 '이진희'라는 이름 석 자가 꼽힌다. 고(故) 이진희의 삼성 회장의 유족이 2년3개월여 전에 이르는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하면서 '이진희 컬렉션'을 둘러싼 관심이 여러 각도에서 폭발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몇몇 미술관에서 삼성 일가가 기증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있어 그 관심은 이제 관람 열풍으로 번졌다. 고인이 됐지만 기증한 '이진희의 커다란 존재감과 유명세로 빛아진 열거'가 분명하나, 업계 차원이나 미술품 애호가라면 소장품 목록의 면면에 대한 관심도 솟아날 수밖에 없다. '이진희 컬렉션'을 계기로 미술품 수집의 마력을 되짚어본다.
- 14 **ETERNAL BRILLIANCE** 화이트 골드에 세팅한 1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뿜어내는 존재감.
- 15 **ROUND CHIC** 손목에 올리는 순간 독보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메종의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 16 **AGE OF INNOCENCE** 햇살 아래 반짝이는 투명한 크리스탈처럼 깨끗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브라이덜 모던트.
- 26 **WHITE OUT** 포인트이자 세련된 마무리를 도와줄 화이트백.
- 27 **COVER THE SUN** 눈부신 계절, 여름 완벽한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스타일을 한껏 살려주는 빅 프레임 선글라스.
- 28 **SIXTH SENSE** 감이랄 수 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매년 새롭고 신비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도전하는 메종 까르띠에. 올해는 까르띠에 사점 생(Sixième Sens)을 통해 '직감'이라는 독특한 감각의 힘을 담아냈다.
- 30 **GREEN EFFECT** 여름 속에서도 대담이 선명하고 분명한 기운, 그린 컬러를 품은 IWC 파일럿 워치 3 피스.
- 32 **COSMIC CHARMS** 우주와 천체의 신비를 담은 반클립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탄생했다. 수많은 예술가와 과학자, 문인에게 오랜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미지의 세계에 새로운 상상성과 역동성을 담아,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수레 제투왈(Sous les Étoiles)' 컬렉션이다.
- 34 **FRESH HYDRATION** 여름철에는 강한 햇볕 때문에 피부 타인을 막론하고 건조함의 절정을 경험한다. 건조는 노화까지 앞당기기 때문에 이른 시기일수록 철저한 수분 관리가 필수. 피부 갈증을 해소하고 장벽을 강화해 피부 보호 효과를 겸비한 사뮈 이드라 뷰티 네 가지 라인업과 함께 라면 여름철 수분 관리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 35 **COMFORT ZONE** 간편한 홀스피를 도와주는 스마트한 뷰티 아이템.
- 36 **SAVE HIS SKIN** 휴간 달아오른 피부를 위한 가볍고 산뜻한 그루밍템.
- 37 **INTO THE SCENT** 향으로 공유하는 현대리스 향수.
- 38 **EDITOR'S PICK**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한 구연해물 서머 뷰티 에센셜.

# IWC PILOT. ENGINEERED FOR ORIGINALS.



— Big Pilot's Watch Perpetual Calendar. Ref. 5036: 빅 파일럿 워치의 짙은 블루 다이얼은 퍼페추얼 캘린더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켜줍니다. 1980년대 Kurt 클라우스(Kurt Klaus)가 개발한 기계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서로 다른 월별 일수와 윤년을 고려해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 2개의 배럴과 7일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IWC 자체제작 52615 칼리버는 완벽한 정교함을 보장합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DOWNLOAD THE NEW IWC APP FOR VIRTUAL TRY-ON

IWC-manufactured 52615 calibre · Pellaton automatic winding system · 7 days power reserve · Perpetual calendar with display for the date, day, month and year ·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 Water-resistant 6 bar · Diameter 46.2 mm · Stainless steel

IWC Schaffhausen, Switzerland · www.iwc.com

**IWC**  
SCHAFFHAUSEN

# Style 조선일보

Issue.224 August 2021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현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분해·재판 | 리은 인씨 | 타린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의로 발행됩니다.

# 눈으로 말해요

짙은 스마트폰 및 전자 기기 사용으로 피로한 눈. 그로 인해 눈가 피부 역시 약해지기 마련이다. 에스티 로더의 독점 기술인 크로노록스™ 파워 시그널 테크놀로지는 밤 동안 피부 개선 능력을 높여 눈가 미세 움직임에 따른 손상을 줄여준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눈가를 마사지하듯 제품을 바르면 눈가 주변의 혈행을 개선해주어 빛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퍼어이 컨센트레이트 매트릭스 싱크로나이즈드 멀티-리커버리 콤플렉스 15ml 10만2천원대. 문의 02-6971-3212



# OPEN OUT

손가락 굵기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오픈 링.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파니 T 스캐어 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타파아프로 티파니의 상징적인 T 모티브를 표현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00 **사벨 화인 주얼리 카펠리아 프레스유 링** 화이트 골드에 파이어 컷 다이아몬드 1개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32개로 이뤄진 카펠리아 플라워 모양 링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쇼파드 해피 H 링**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빅 하트와 0.047캐럿 무망 다이아몬드 1개를 배치한 스몰 하트를 장식한 링 4백45만원, 문의 02-6905-339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상영민**

# NEW IN

롯데백화점 본점에 남성 부티크를 연 발렌티노는 이곳에서만 선보이는 익스클루시브 라인을 준비했다. 발렌티노 가라바니 VLTN 로고 오픈 스니커즈는 아이코닉한 로고를 레드 컬러로 전면 프린트해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스트리트 무드를 자아낸다. 질 좋은 송아지 가죽으로 감싸고 화이트 컬러의 상징적인 스터드 장식을 더해 조용하지만 강한 매력을 뽐낸다. 81만원, 문의 02-772-3845



# 매혹의 시간

1968년 처음 선보인 반클리프 아펠의 알함브라 주얼리 컬렉션에 또 하나의 위자가 추가되었다. 시그니처인 네 잎 클로버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17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체인 위치 디자인을 재현해 고급스러운 펜던트 형태를 완성한다.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기묘세로 장식한 옐로 골드 다이얼로 화려함과 우아함을 불어넣었다. 5천9백만원대, 문의 1668-1906



# TINY LADY

작지만 강한 매력 포인트를 지닌 마이미르 백.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내추럴 스트로 소재로 제작한 펜디 신사인 쇼퍼 미니 백, 13x18cm, 1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한 클라렌코 클라지 나노 백, 12.5x15.5cm,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6905-3470. 화이트 램스킨 클라지 백, 9x10cm, 가격 미정 **사벨**,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주이**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SILKY SKIN

우아한 광채 피부를 완성하는 쁘아레의 땡드 소와, 플루이드 제형으로 부드럽게 발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윤기를 표현하는데, 무엇보다 피부결 사이사이까지 고르게 발리는 섬세한 텍스처가 압권이다. 제형 자체가 가벼워 레이아웃에도 무겁지 않고, 피부가 한층 탄탄하고 촉촉해 보이도록 해준다. 여덟 가지 톤으로 구성되었다. 30ml 11만7천원, 문의 02-310-5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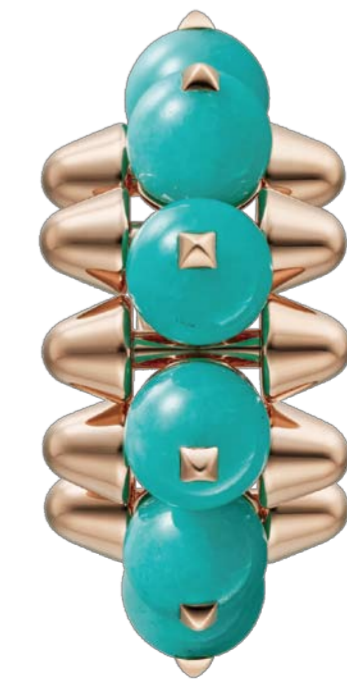
# FIRST CLASS

펜디 퍼스트 백은 비스듬한 펜디의 상징적인 모노그램을 모티브 삼아 창의적이고 반항적이며 자유로운 김 존스의 비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나파 가죽, 파이톤, 퍼, 시어린, 캘리그래피 모노그램 디테일의 플라넬 등 다양한 버전들 미디엄과 스몰, 두 가지 사이즈로 선보인다. 4백만원대, 문의 02-514-0652



# STAY COOL

피부 온도를 낮추고 자극받은 피부를 달래줄 쿨링 제형 4. (왼쪽부터) **클라렌스 하이드라-에센셜 미스트** 알프스 청정 자연에서 얻은 칼슘과 아미노산과 수레국화 성분 미네랄이 함유된 에센셜 미스트 제형이다. 75ml 4만3천원대, 문의 080-542-9052 **사슬리 젤 인스피리드 오 클리닉 수분 펙** 비타민 C가 풍부한 유가 농도가 높고 촉촉하고 백백, 아이리스 추출물이 각질층에 수분을 채우고, 피부 표면의 유연함을 되찾아준다. 60ml 15만원, 문의 080-549-0216 **뱀 화이트 트러틀 리프라이브 스킨 케어 세럼** 병충 추출물과 워터링 추출물, 티트리 잎 오일, 맨백 잎 추출물 등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이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추고, 수분과 영양을 채워 유 수분 밸런스 조절을 돕는다. 100ml 4만6천원, 문의 070-7714-8428 **사벨 테트라 마이트 크림** 케어미어 알바 PFA7 피부 속 수분 레벨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즉각적인 스무딩 효과를 선사한다. 50g 12만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주이**



# CRUSH ON YOU

까르띠에의 새로운 아이코닉 주얼리 컬렉션 클래쉬드 까르띠에는 과거와 현재, 고전적인 우아함과 새로운 도전, 대중적인 것과 고급한 스타일 등 2개의 대립적인 코드를 믹스해 새로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이 아이리움은 아마존나이트를 세팅해 풍부한 불꽃감을 선사하며 원형 스톤과 피코 장식이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준다. 1천9백만원대, 문의 1566-7277

# THE BALVENIE BAR



상류층 위스키 시장에서 강력한 팬덤을 지닌 발베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서울 청담동 미술관 2스타 레스토랑인 정식당에서 운영하는 정식 바인내에 자리한 더 발베니 바 (The Balvenie Bar). 발베니 12년부터 40년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 라인업이 구비되어 있으며 단종된 바랄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연신과 리미티드 에디션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발베니 전 제품을 모아놓은 아늑한 바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발베니 증류소에서 영감을 얻어 태워져 꾸며져 있는데, 글라스도 보틀이든 원하는 대로 골라 바텐더와 담소를 나누면서 시음의 미학에 집중할 수 있는 데다 정식 바의 빼어난 푸드 페어링까지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공간이다. 예컨대 네 가지(더블우드 12년, 캐리비안 캐스크 14년, 더블우드 17년, 포드우드 21년)로 구성된 발베니 테이스팅 세트 메뉴를 고르면서 정식당과 협업해 개발한 발베니 푸드 페어링 세트 메뉴를 추가하면 수제 위스키와 미식의 조합이 빛어내는 독특한 페어링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다. 매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발베니 리미티드 에디션도 만만치 않다. 올해까지 한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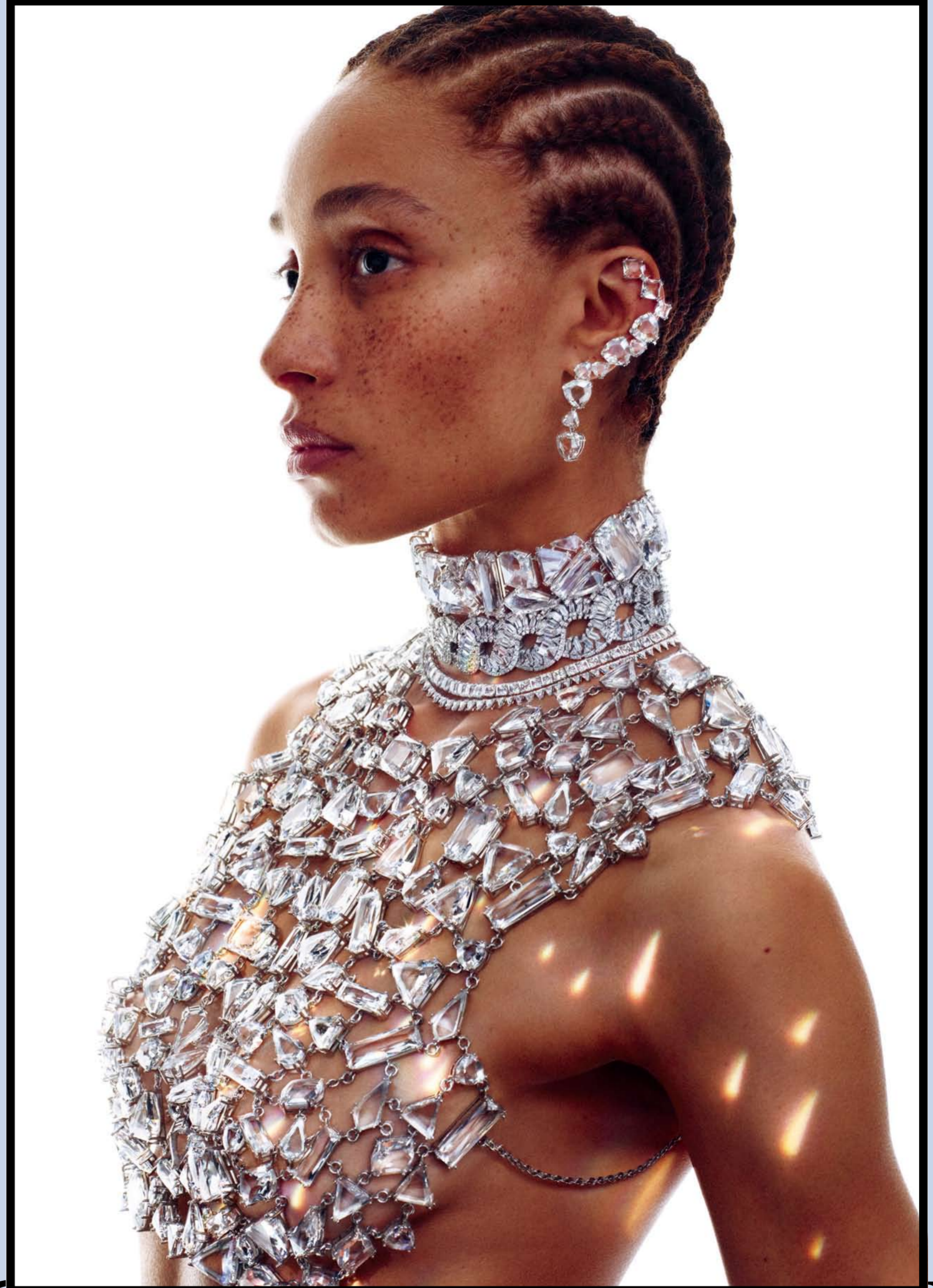


1 레아디 다울 램 스킨 토트백, 24 X 20cm, 가격 미정 **다울**. 2 플러워 패턴 임브로이더리와 비즈로 장식한 웨딩드레스 가격 미정 **힐 이드라 by 헤리티지뉴욕**. 3 스퀘어 장식 핑크 스텔레토 힐 1백2만원 **세르자오 로시**. 4 생-루이 토미 플루트 진 50만원대 **에르메스**. 5 식류와 레몬, 장미 재스민이 어우러진 마이 버버리 블러쉬, 50ml, 13만4천원 **버버리**. 6 빛방울에서 영감을 얻은 플루이드 까르피에 브로치 4천1백만원대 **까르피에**. 7 라간스톤과 진주 장식이 우아한 조화를 이루는 헤어핀 4천만원대 **8 by 옥스**. 8 진주 장식 클라치, 11.5 X 8cm, 2백54만원 **자미추**. 9 씨타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절 마스터 크로노미터 34MM 4천36백만원대 **오메가**. 10 로만 스타드 힐 9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11 화이트 골드 소재에 라운드 버밀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레이슬릿 4천4백만원대 **불가리**. 12 로만과 장미 향이 우아한 조화를 이루는 가볍고 달콤한 향이 특징인 벨레포크 로제 샴페인 가격 미정 **페리에 주에**. 13 앙트라세 드 까르피에 주얼리 박스 2백36만원 **까르피에**.

다울 02-3480-0104 헤리티지뉴욕 02-514-4010  
 까르피에 1566-7277 버버리 02-3452-1921 에르메스 02-544-7722 8 by 옥스 02-6911-0748 세르자오 로시 02-3479-1572 불가리 02-2056-0170 자미추 02-3443-9469  
 오메가 02-3467-8632 페리에 주에 02-3466-5700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3

# for her Selection

여름 햇살만큼이나 눈부신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컬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park kun woo**



# SWAROVSKI



1 알렉산드로 디에제 레더 옥스퍼드 슈즈 가격 미정 벨루티, 2 버레-나 아송이 지 가죽 소재의 펜 케이스 40만원대, 노틸러스 컬렉션 알루미늄 소재의 볼펜 1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3 텍사드 셋업 1백80만원, 베이스한 셔츠 20만원, 보타이 5만원, 포켓 스케어 30만원 모두 마크론스, 4 세인트 제임스 그린인 카드 지갑 48만원 차차스, 5 나염 실드 스키프 23만5천원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6 완창에 이르는 무브먼트 3230으로 구동하는 오이스터 퍼페츨 양스클로러 36MM 7백81만원 롤렉스, 7 클래식 하브 프레임 아인웨이 가격 미정 쉐들몬스터, 8 파슬리와 캐주얼 노트가 미묘한 홈 내음을 발산하는 벨벳 파슬리 50ml 35만원 들레안기바나, 9 카라멜과 바닐라 향이 깃든 엄 그랑 코르동 심페인 10만원 대 엠, 10 큐브 워치 워터더 1구 42만9천원 울프1834, 11 에나멜 소재의 폴아웃 로퍼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12 블랙 GG 수프림 토트백, 37 X 30cm, 2백71만원 구찌, 13 블랙 더블 갠치 니벨트 63만원 살바토레 페라기모.

벨루티 02-547-1895 차차스 02-3218-5331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02-518-0285 에르메스 02-544-7722 마크론스 02-514-8070 롤렉스 02-2112-1252 쉐들몬스터 1600-2126 살바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들레안기바나 080-564-7700 엠 02-3466-5700 구찌 02-3452-1921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울프1834 1599-8246

# for him Selection

예비 신랑을 위한 자연스러운 품격을 담아낸 웨딩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park kun woo

# dandy slim

세련되고 우아한 셔츠 실루엣을 완성해줄 드레스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불가리 오토 파나미 S 울트라-신 위치 부문에서 6개의 세계 기록을 가진 오토 파나미 컬렉션 신제품, 케이스 두께가 2.23mm에 불과한 불가리 인히우스 울트라-신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해 두께 6.4mm의 케이스를 완성했다. 덕분에 소매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스틸에 풀리싱 및 새틴 브러싱 마감을 곁들여 적용해 정교한 입체감을 더했고, 수직으로 브러싱 처리한 실버 다이얼이 한층 더 세련된 매력을 선사한다. 1천4백만원 대. 문의 02-2056-0170

해밀턴 아메리칸 클래식 인트라-메릭 크로노그래프 H 슬림한 스타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사용했으며 블랙 다이얼 안에 반투명 라인을 연상시키는 슈파-루마바우와 박스 스타일 사피어 크리스탈을 더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해밀턴 스타일을 재현했다. 소매 걸림 없이 착용 가능한 실용적인 40mm 케이스에 스틸 메시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세련되고 시트한 감성을 더한다. 2백88만원. 문의 032-320-7559

에거 로콜트르 마스터 울트라 신티온 다이얼의 대담하고 우아한 패턴과 울트라 딥 블루 칼라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특히 테이퍼드 실루엣이 워터 마카가 모던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더한다. 지름 39mm의 케이스와 길고 미묘하게 원근 디자인으로 손목에 딱 맞아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 모던하고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컬러와 양력트 옻칠 비주얼을 갖춰 손목에서 드러날 때마다 돋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한다. 1천3백40만원. 문의 02-6905-3998

가르미에 발롱 블루 드 가르미에 케이스 지름 36.6mm로 슬림하게 디자인된 발롱 블루의 레더 스트랩 버전. 조약돌처럼 부드러운 라운드형 케이스가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사피어로 장식한 크라운이 발롱 블루 컬렉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검 도양의 블루 스틸 핸즈와 블랙 세미-메트 알라게티어 가죽 스트랩에 시크한 도시 남성의 스타일을 담았다. 7백만원대. 문의 1566-7277

브라이틀링 프리미어 809 크로노그래프 40 크로노그래프 위치 발명을 주도한 브라이틀링의 해리엇을 담은 위치, 아반이슈자 인텍스와 반투명 스타일의 핸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담은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톤온톤 스타일을 기미한 반유광 악어가죽 스트랩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유니크한 색상의 파스텔치오 그린 컬러를 적용한 다이얼로 한층 더 세련된 감각 역시 놓치지 않았다. 9백90만원대. 문의 02-3448-1230

소피드 L.U.C 지름 40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와 새틴 브러시 샌바스트 마감한 실버 다이얼의 조화가 남성 워터민 에도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느끼게 하는 디자인. 심플하게 떨어지는 라그 부분이 시크한 매력을 지니며 케이스 두께가 슬림해 드레스 워치로 손색없는 디자인을 갖췄다. 2천5백87만원. 문의 02-6905-3380 에티어 상향민



‘이건희 컬렉션’ 신드롬과 수집 미학

# The Collections

이 정도면 ‘신드롬’이라고 해야 할까. 올 들어 미술계, 아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단연 ‘이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꼽힌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2만3천여 점에 이르는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하면서 ‘이건희 컬렉션’을 둘러싼 관심이 여러 각도에서 폭발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몇몇 미술관에서 삼성 일가가 기증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있어 그 관심은 이제 ‘관람 열풍’으로 변했다. 고인이 됐지만 기업가 ‘이건희’의 커다란 존재감과 유명세로 빚어진 열기임이 분명하나, 업계 차원이거나 미술품 애호가라면 소장품 목록의 면면에 대한 관심도 솟아날 수밖에 없다.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미술품 수집의 미학을 되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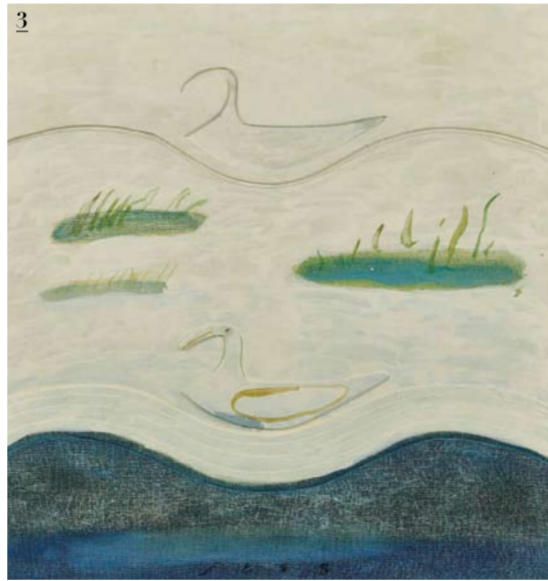
미술품은 ‘중고’의 몸값이 예측 불가능한 잠재 성장력을 지닌 희소한 존재다. 그저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오래 모셔둔 수준이 아니라 엄연히 벽에 걸었던 ‘중고’인데도 가격이 치솟을 수 있을뿐더러 창작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소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물론 둘 다 남다른 명성을 지녔다면 당연히 그 가치가 고공 행진을 하게 된다. 단순한 판매 가격뿐 아니라 상징적인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그럴 듯한 스토리텔링까지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일 테고 말이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모든 요소를 가진 사례가 아닐까 싶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여러 국공립 미술관을 통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대중에게 공개되자 바로 전시장 티켓이 동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불거진 작금의 관심은 그 같은 존재감을 입증해준다.

## 베일 벗은 ‘이건희 컬렉션’의 면모

팬데믹의 여전한 공세에도 ‘이건희 컬렉션’의 위력은 감탄할 만하다. 대구미술관은 지난 6월 29일 ‘이건희 컬렉션’ 21점

을 공개하는 특별전 〈웰컴 홈〉을 열었는데, 2주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상당수는 타 지역에서 발걸음을 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7월 21일 나란히 개막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MMCA)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기간제 예약이 진행되면 바로 마감되는 모양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의 여파로 시간당 허용 관람객 수가 적은 탓도 있지만 워낙 관심이 높고 자재가 높다. 제주 이충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등도 오는 9월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각각 시작하고, 11월 개최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박수근 회고전에도 일부 기증품을 선보이는 등 한동안 우리나라 곳곳의 전시 풍경에서 ‘이건희’의 자취는 눈에 띄게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건희 기증품’을 따로 모아 별도의 미술관을 짓는다는 구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작품의 면면을 궁금해하는 대중의 발길은 그 목적이 어디가 됐든 뜨겁게 이어질 것 같다.

아무래도 ‘이건희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는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한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오는 9월 26일까지)과 20세기 대표 작가들의 명작을 엄선한



이건희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크리스티(경매업체)



1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에서 지난 7월 21일 역을 열린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한국미술명사’ 전시 풍경.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김환기의 작품 3점이 보인다. 맨 오른쪽 작품은 ‘산울림 19-11-73#307(1973)’, 264 X 213cm, 기운대 작품은 3-X-68#1201(1969), 왼쪽의 대작은 ‘여인들과 향아리(1950년대)’. 김환기가 사랑했다는 백자 향아리가 모티프로 등장하는 ‘여인들과 향아리’는 원래 산호그늘 정채호 회장이 자택의 벽화로용으로 주문해 제작한 작품이다. Photo by SY Ko 2 MMCA 서울관의 전시에서 선보인 이중섭의 1950년대 작품 ‘흰 소’, 종이에 유채, 30.5 X 41.5cm. 3 지난 6월 말 개막한 대구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전시 (웰컴 홈)에서 선보인 작품. 변창호, ‘오리가 있는 풍경(1976)’, 캔버스에 유채, 85.7 X 85.7cm. 4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 7월 21일 시작된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오는 9월 26일까지)에 전시된 경채 정선의 ‘인왕제색도(조선, 1751년)’, 종이에 먹, 79.2 X 138.0cm, 국보 제216호. 5 MMCA 서울관 입구로 들어선 바로 눈길을 사로잡는 백남준의 작품 ‘낙원(1936년경)’, 캔버스에 유채, 8쪽 병풍, 173 X 372cm. Photo by SY Ko 6 러시아의 미술품 애호가 이반 모로조프의 모스크바 재배에 살았던 피에르 보-노브의 작품들. ‘Panneau de Pierre Bonnard de l’escalier principal de l’hôtel particulier d’Ivan Morozov rue Prechistenka(1916)’. Photo by I. N. Alexandrov © I. N. Alexandrov; Droits réservés 7 오는 가을 프랑스 파리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인 ‘이건희 컬렉션’의 아이콘: 모로조프 컬렉션(Icon of Modern Art: The Morozov Collection) 전시의 출품작, Pierre Bonnard, ‘The Mediterranean(1911)’, Triptych, Oil on canvas, 407 X 149/152cm,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8 러시아 화가 발렌틴 세로프가 그린 이반 모로조프의 초상화, Valentin Serov, ‘Portrait of the Collector of Modern Russian and French Paintings, Ivan Abramovich Morozov(1910)’, Tempera on cardboard, 63.5 X 77cm, Tretyakov Gallery, Moscow. 6~8 이미지 제 공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9 2018년 크리스티의 주관으로 열린 록펠러 가문의 3세 고(故) 피카소(레오나르도 록펠러 부부의 소장품 경매에서 1억 3천만 달러에 낙찰된 피카소의 ‘꽃피는 물든 소녀(1905)’. 당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됐다. 10, 11 2009년 파리에서 열린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과 그의 동반자였던 피에르 베르제가 평생 모은 소장품 경매에서 루이비통 크리스티 20세기 기부의 경매가 산하(루이비통) 2천1백90만 유로에 낙찰된 이블린 그레어의 ‘드래곤 체어(Dragon Chair)’. 9~11 사진 크레디트 Christie’s Images LTD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내년 3월 13일까지)’일 것이다. 청동기부터 조선까지 아우르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는 결재 정선(1676~1759)의 결적으로 손꼽히는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가 단연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이 회장이 처음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 공개한 작품 수는 77점. 예약에 성공한다면 삼국시대 금동불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일광삼존상(국보 제134호)’, 고려시대 사경(寫經)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국보 제235호)’, 단원 김홍도(1757~1806)가 말년에 그린 ‘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청동기시대 ‘붉은 간토기와 미려한 청백자’, 그리고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015



호)와 ‘수월관음도’ 같은 빼어난 14세기 고려 불화의 형용하기 힘든 매력에 빠져볼 수 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34명의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주요 작품 58점을 선보인 MMCA 서울의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는 크게 3개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새 문물이 유입된 시기를 다룬 ‘수용과 변화’,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은 1945~1950년의 격동기를 조명할 ‘개성의 발현’, 그리고 전후 국내외에 정착해 자국민의 작품 세계를 찾아나간 작가들을 소개하는 ‘정착과 모색’. 일단 전시장에 들어가면 8쪽 병풍에 펼쳐진 유채화인 백남준의 ‘낙원(1936년경)’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데, 작품명처럼 동양의 무릉도원과 서양의 아카데미가 섞여 있는 듯 독특한 느낌의 풍경화다. 서양화를 공부한 1세대 여성 화가의 대표 주자인 백남준은 이중섭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다(이중섭의 1950년대 명작 ‘흰 소’와 흰 소도 이번 전시에 출품돼 있다). 권진규와 김중영의 조각, 장욱진, 박수근, 유영국, 이성자, 류경채의 회화 등 빼놓을 작품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백미는 한 벽을 채운 김환기의 대작 ‘여인들과 향아리(1950년대)’. 김환기 작품 중 가장 큰 그림으로 그가 끄집어 아꼈다는 백자 향아리 이미지와 더불어 반라의 여인들, 학, 사슴, 새장 등 여러 모티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수집망’이라 할 만한 전설의 컬렉터들

올해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의 감정가만 3조원에 이른다는데도 있지만 금액보다는 시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미술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로라하는 자선가들은 ‘예술에 탐닉했다. 크리스티 경매 중에서도 전 세계적 인목을 끌었던 이브 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가 남긴 컬렉션 경매(2009), 록펠러 가문의 컬렉션 경매(2018)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자신의 취향과 안목,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는 재테크와 절세, 상속의 수단이라든 그 기저에는 대부분 예술에 대한 사랑도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수집광’은 많지만 세인들이 미술관급 ‘컬렉션’이라 명



명할 만큼 소장품 목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돈뿐 아니라 열정과 노력, 지식, 네트워크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이건의 컬렉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전설의 컬렉터들이 있는데, 페기 구겐하임(1898~1979)과 세르게이 시추킨(1854~1936)이다.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의 설립자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딸로 잭슨 폴록 등을 무명 시절부터 후원하며 미국의 현대미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는 페기 구겐하임은 “나는 컬렉터가 아니다. 미술관이 다라는 말로 유명하다. 사후 구겐하임 미술관에 기증된 그녀의 아름다운 컬렉션은 이탈리아 베니스의 자택이던 공간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운하 쪽을 향한 야외 공간에 두 팔을 경쾌하고 벌리고 있는 마리오 마리아니의 ‘도시 천사’를 비롯해 그녀의 소장품을 보노라던 상당수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마주하면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현기증까지 느끼는 ‘스릴’ 신드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참을 홀려듯 스스로에게 ‘다음’을 기억하게 된다.

‘결코 오만하지 않는 눈’을 가졌다든 세르게이 시추킨은 러시아의 대부호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인물로, 자신과 동시대에 호흡했던 대가들의 작품을 대거 수집했다. 피카소, 모네, 세잔, 고갱, 마티스 등 그야말로 20세기 서양미술 거장들의 컬렉션이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이 잇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 비극에 더해 러시아 정치사의 격변까지 겪으면서 시름이 빠진 그는 결국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의 막대한 컬렉션은 전부 국가 소유가 됐고, 급기야 ‘소말’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결국 에르미타주 미술관과 푸시킨 미술관에 남겨 됐다. 지난 2016년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의 아이콘: 시추킨 컬렉션(Icon of Modern Art: The Shchukin Collection)〉이라는 전시를 열었는데, 사연 많은 그의 컬렉션이 제대로 된 규모와 구성을 갖춰 러시아 밖에서 전시된 건 처음인 지라 반향이 엄청났다. 시추킨의 굴곡진 스토리까지 더해진 명작의 향연에 당시 관람객 수가 1백30만 명에 이르렀다.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설립자이자 세계적인 컬렉터이기도 한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공개적으로 전시장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있다). 오는 가을,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는 ‘2만’ 권인 〈현대미술의 아이콘: 모로조프 컬렉션(Icon of Modern Art: The Morozov Collection)〉을 개최한다. 20세기 초 모스크바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미술 애호가 모로조프 형제의 컬렉션을 소개하는 전시로 프랑스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모더니즘 시조를 대표하는 컬렉션, 러시아 아방가르드 흐름까지 아우르는 결자들의 페레이드 가 예정되어 있다.

요즘 ‘이건희 컬렉션 열풍’이 아니더라도 사실 미술계는 ‘핫’하다.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줄줄이 한국 시장에 입성하고 있고 글로벌 아트 페어 브랜드인 프리즈(Frieze)도 KIAF와 손잡고 서울에서 아트 페어를 연다. 그래서 미술품 컬렉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시장이 이처럼 들떠 있을 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대부분 수준이어서 좋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다는 이른 낙담이나 실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7년만 컬렉터가 훌륭한 작품을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주는 메시지처럼 ‘유명 작품도 한때는 모두 합리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그리고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 널 비껴나서 더 급진적인 미술 작품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자(그 작가군이 반드시 어린 작가일 필요는 없다는 충고도 함께). 글 고영민

# eternal brilliance

화이트 골드에 세팅한 1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뿜어내는 존재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반향으로) **피아제 트래저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약 1.3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주위에 약 0.21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3개와 약 0.56캐럿 미카즈 컷 다이아몬드 6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02 **블가리 피오레버 이어링** 화이트 골드에 총 1.15캐럿, 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총 0.91캐럿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바늘에 실은이듯 상세하게 움직이며 대담하고 조형적인 볼륨감을 지닌 독특한 이어링이다. 4천4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타파니 타파니 세팅 링** 세계 최초로 플래티넘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으로 6개의 프랭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림으로써 빛이 하단까지 통과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반클리프 아펠 로망스 솔리테어 1캐럿 링** 플래티넘에 1캐럿 EVVS2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7개를 세팅하고 밴드를 따라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다이아몬드는 모두 DE 및 F~VVS 등급이다. 3천4백만원대. 문의 1668-1906 **까르띠에 까르띠에 데스티네 네크리스** 조화로운 원형이 돋보이는 네크리스로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중앙에 세팅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강조했다. 메인 다이아몬드는 1.5캐럿부터 1.69캐럿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격 미정 1566-7277 **부셀론 톱 드 파리 솔리테어 링** 파리에 있는 로망틱한 디어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다. 1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주변을 감싼 작은 다이아몬드가 로맨틱함을 극대화한다. 메인 다이아몬드는 0.32캐럿부터 1캐럿까지 선택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22 에디션 **장마운**

# round chic

손목에 올리는 순간 돋보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메종의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단조로운 세이프에 상세한 골드 비즈를 하나하나 새겨 넣어 캐주얼하면서도 럭셔리함을 잃지 않은 브레이슬릿. 베를리 시그니처 주얼의 제철에는 캥고레피로 새긴 반클리프 아펠 서명 아몬베스크가 자리해 메종의 대표 주얼리다운 품격을 보여준다. 화이트 골드 버전 9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타파니 T1 내로우 하프 다이아몬드 한자드 밴글 T** 심벌을 실물하면서 모던하게 표현한 브레이슬릿. 강한 여성성을 위한 디자인으로 메종의 시그니처 브레이슬릿다운 임팩트를 부여한다. 다른 주얼리와 레이어드하기 좋은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캐주얼하고 편안한 감성을 담았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쇼메 비미리브 브레이슬릿** 육각형의 발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주얼리 컬렉션으로 쇼메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총중이 쌓인 발진처럼 견고하고 따뜻한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형태가 고급스러운 반박임을 선사한다. 6백만원대. 문의 02-3442-3159

**프래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1969년에 제작된 포스텐 브레이슬릿은 하우스를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 우븐 스틸 세팅링 케어 메탈로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을 부여하고, 18K 화이트 골드와 64개의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바늘 디자인으로 우아함까지 놓치지 않았다. 1천4백2만원. 문의 02-514-3721

**까르띠에 리브 브레이슬릿** 우정과 사랑을 의미하는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컬렉션. 1969년 처음 출시되었고, 특별 제작한 스크루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서 착용하는 독특한 형태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 심플하고 모던한 상징적 디자인으로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8백30만원. 문의 1566-7277

**블가리 비데로원 락 브레이슬릿** 블가리의 대표 아이콘이자 세계적으로 디자인 아이콘 비데로원의 새로운 컬렉션. 1980년대 블가리 해리포터 투보스 초카에서 영감을 받은 스텝 디테일과 기존 비데로원 디자인을 결합해 과감하고 예지 있는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독립성, 강인함, 내성이라는 메시지를 지향하며 세련되고 인플루언스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9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다이아니 벨 에르크 브레이슬릿** 살린자 연호의 스퀘어에서 유래한 심플한 심지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링 형태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캐주얼하게 연출 가능하다. 18K 골드 컬러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임팩트를 주며, 빛에 따라 은은한 반박임이 깊들아 세련스러워 하느 손목에 우아함을 부여할 수 있다. 4백34만원. 문의 02-3213-2141 에디션 **정영민**

공정하고 투명한 정가와 정가판매를 약속하는 정가판매점  
동 배재동 1번지 2010 3층 302호. 문의 02-2188-5100



춤찬 레이스와 롱 슬리브 오프슈더 디자인으로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드레스 가격 미정  
**오스카 드 라 렌타 by 소유 브라이덜.**  
화이트 골드 보드에 패어 컷 다이아몬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조합해 빛깔을  
표현한 플루이드 카르다에 이어링 7천만원대,  
플루이드 카르다에 네크리스 3천만원대 모두 **카르다에.**



# Age of innocence

햇살 아래 반짝이는 투명한 크리스탈처럼 깨끗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브라이덜 모먼트. photographed by **kim sin a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4개의 프롱이 2.06캐럿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리고 있는 클래식 18K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카르다에.** 플래티넘 보드에 0.3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토르셀로 솔리테어 링  
4백만원대 **불가리.** 유려한 실루엣을 이루는 클로 시아에  
1.0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올린 피아제  
엘레강스 인게이지먼트 링 3천6백만원대 **피아제.**



(왼쪽부터) 1.06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유려한 사쿠라 골드 링이 우아한 빛을 발하는 피아네트 링 2천8백만원대, 곡선형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세팅한 인피니타 링 1백만원대 모두 **타사기**. 핑크 골드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23개를 세미 피에 세팅한 프레스도 포 러브 웨딩 링 1백96만원, 0.77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8개를 피에 세팅한 델핀 인게이지먼트 링 가격 미정 모두 **프렌드**. 핑크 골드와 브라운 PVD를 결합한 보드에 0.27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콰트로 클러시 인게이지먼트 솔리테어 링 4백만원대 **부세론**.

풍성한 퍼프 소매에 비즈 장식을 다한 새틴 실크 드레스 가격 미정 **라리아비스 by 아틀리에쿠**. 안꽃 모티브 패턴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로타스 클립 펜던트 라지 모델 네크리스 1억8백만원대, 입체적인 이플리케 디자인 돋보이는 로타스 비트윈 더 핑거 링 4천8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라벨 칼라의 롱 화이트 코튼 베스트 98만원,  
 와이드 밴드 88만원 모두 **스포츠와스**, 풍성하게  
 묶어 허리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리본 장식  
 가격 미정 **드야베**, 플라워 모티브를 중심으로  
 0.3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와 총 3.0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게 세팅한 피오레버  
 브레이슬릿 5천만원대, 화이트 골드로 표현한  
 만개한 꽃봉오리 모티브에 0.39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와 총 0.347캐럿의 파베 다이아몬드를  
 더한 피오레버 링 1천2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왼쪽부터)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베젤과 오토메스로 화려함을 더한  
 컨스텔레이션 코-엑스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를 세컨즈 워치 4천9백만원대 **오메가**,  
 플랑블 모양 케이스와 펌 비늘을 모티브로 한  
 육각형 링크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이 어우러진  
 독특한 형태와 카보숩-컷 정스톤 크라운  
 세팅이 돋보이는 워치 5천만원대 **불가리**.



(왼쪽부터) 로즈 골드 케이스와 핸즈,  
 베젤에 48개의 풀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워치, 6시 방향에 문패이즈  
 창을 갖췄다. 2천2백42만원대 **플랑망**,  
 핑크 골드 케이스에 베젤과 그 축면, 러그와  
 러그 사이, 다이얼 안까지 가득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극도의 우아함과 화려한 광채를  
 선사한다. 8천5백만원 **바세론 콘스탄틴**.



(위부터) 메종을 상징하는 T 모티브를 형상화한 감각적인 로즈 골드 보다가 특징인 티파니 T 내로우 링 컬렉션. 로즈 골드로만 이루어진 오리지널 링 2백만원대, 총 0.4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링 7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얼음 조각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스 큐브 컬렉션. 1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 링 2백67만원, 사각 형태로 이루어진 밴드 링 중앙에 0.1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 링 1백30만원 모두 **쇼파드**. 메종의 모노그램을 인그레이빙한 푸주르 시그니처 에드워 워딩 밴드. 두께 4mm 로즈 골드 밴드에 0.06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름모 장식이 새겨져 있는 남성을 위한 워딩 밴드 2백만원대, 두께 3mm 로즈 골드 밴드에 총 0.08캐럿의 7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의 보 모티브 장식 여성용 워딩 밴드 2백만원대 모두 **반블리프 아펠**.



(왼쪽부터) 18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클래식 밴드 위로 0.55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나는 해피 브라이드 컬렉션 1천2백51만원 **쇼파드**. 1.24캐럿 센터 스톤을 중심으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해 광채를 더한 티파니 하모니 링 2천2백만원대, 유려한 라인을 뽐내는 클래식 컬렉션 티파니 하모니 밴드 링 1백70만원대 모두 **티파니**.

네코라인부터 슬리브까지 레이스로 장식해 타이트하게 상체를 잡아주며 아래로 갈수록 풍성하게 떨어지는 힐드레스 가격 미정 **이영순 워딩드레스**. 총 4.97캐럿의 5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피아제 신라이트 네코라스 4천5백만원대, 드림 모티브로 눈부신 태양 빛을 표현한 피아제 신라이트 아이림 2천4백만원대 모두 **피아제**.





(위부터) 화이트 골드로 표현한 리본 모티브에 총 0.92캐럿의 67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루반 컬렉션 링 가격 미정, 총 0.73캐럿의 48개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게 세팅한 이어링 가격 미정 모두 **사설 하이 주얼리**.



(위부터) 0.64캐럿의 16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2개의 벨 마리 모티브가 마주 보고 있는 오픈 벨류 형태의 세팅 보헤미안 모티브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3개의 크고 작은 모티브가 꽃잎 모양을 연상시키는 세팅 보헤미안 트라플 모티브 링 1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 8을 형상화한 화이트 골드 모티브 3개로 이루어진 샹스 인피니 체인 브레이슬릿 8백38만원 **프렌드**.

슬림하게 떨어지는 아메이드 라인 드레스로 총총하게 핀 라이스 원단이 내추럴하고 우아하다. 가격 미정 **드이베**.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기품 넘치는 화이트 팬던트에 0.32캐럿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와 총 1.02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2백50개를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선사하는 플럼 드림 M 팬던트 비크리스 2천만원대, 총 0.33캐럿의 96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플럼 드림 웨딩 밴드 7백만원대 모두 **부세론**.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사이클**  
모델 **에바(Eva)**  
아사스틴트 **배서현**  
에디터 **성정민, 이주이**

- 까르띠에 1566-7277
- 빈클리프 아펠 1668-1906
- 사설 하이 주얼리 080-200-2700, chanel.com
- 피아제 02-3479-1802
- 볼가리 02-2056-0170~2
- 타사키 02-3461-5558
- 프렌드 02-514-3721
- 부세론 02-3213-2246
- 스포트막스 02-511-3935
- 오메가 031-5170-1111
- 블랑팡 02-6905-3367
- 바세론 콘스탄틴 1660-4606
- 타파니 02-6250-8600
- 소파드 02-6905-3390
- 드이베 02-730-2886
- 이명순 웨딩드레스 02-540-5551
- 리아비스 by 아틀리에쿠 02-517-3889
- 오스카드 라렌타 by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 white out

포인트이자 세련된  
마무리를 도와줄 화이트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로 화이트 바탕에 블랙 레터링이 포인트인 미니 숄더백, 수려한 곡선 세이프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가격 미정 **셀린** 드, 문의 02-549-6631. 슬릭한 볼륨 장식이 인상적인 나파 가죽 핸드백, 미우미우의 아이코닉한 마티모트 7점으로 칭고 캐주얼한 무드를 표현했다. 크리스탈 체인 핸들과 잔면 메탈 레터링 로고 등의 디테일로 한층 더 세련되고 빈틈없는 룩을 완성한다. 2백8만원대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 1990년대의 아이코닉한 프라다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한 프라다 글래오 호보백, 곡선 라인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특유의 모던한 디자인과 활용도 높은 브라스드 가죽으로 어느 룩이나 연출하기 좋다. 2백90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미니 버전 구피 홀스터 1965 백, 골드 버클로 빈틈없는 감성을 더했다. 양면 화이트 토닉 레드 스트랩과 구피의 시그처 프린트가 담긴 그린 웹 스트랩, 두 가지로 연출 가능하다. 3백60만원 **구피**, 문의 02-3452-1921. 그레이인 카프 스킨에 영보 장식을 더한 플립 백, 톱 핸들이 달린 크로스 백 형태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화이트 컬러에 골드 체인과 로고 버클 장식이 빈티지한 느낌을 주며 우아함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에디터 상영민**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담한 아우트리안이 돋보이는 V 로고 시그처 아세테이트 직사각형 틸트 선글라스 44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버터플라이 윙형 프레임이 상징적인 클래식 톨도즈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아이코닉한 브라운 톨도즈 선글라스-0픽트 프레임과 그레이 그라데이션 렌즈의 조합으로 선보이는 디올 시그처 RIU 선글라스 62만원 **디올**, 옐로 프레임이 기본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캐츠 아이 톨도즈 선글라스 30만원대 **토즈**, 틸트드 오렌지 렌즈와 핑크 프레임의 감각적인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선글라스 가격 미정 **구피**, 경쾌한 컬러감이 눈길을 끄는 아세테이트 스카이 블루 그라데이션 오벌형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샤넬 에디터 아우유**

**발렌티노 가리버니** 02-543-5125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5-2250 **디올** 문의 02-3480-0104 **토즈** 02-3438-6008 **구피** 02-3452-1921 **샤넬** 080-200-2700, chanel.com **피버이나 필리피** 02-6960-0831

# cover the sun

눈부신 계절, 여름! 완벽한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스타일을 한껏 살려주는 빅 프레임 선글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세테이트 프레임

# sixth 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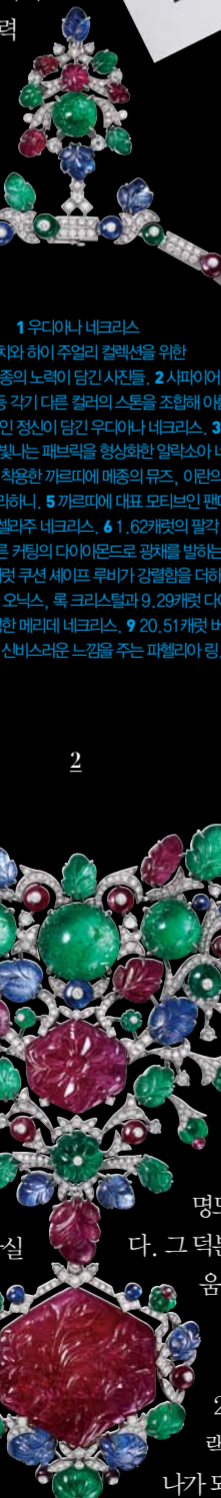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매년 새롭게 신비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도전하는 메종 까르띠에. 올해는 까르띠에 씨쥬 썹(Sixième Sens)을 통해 '직감'이라는 독특한 감각의 힘을 담아냈다.

## 여섯 가지 감각을 일깨우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세계 최고의 주얼리 및 위치 메종이라 자부하는 까르띠에에는 단편적인 소재와 콘셉트를 넘어 마법사(마지씨양), 오페라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의 아리아(콜로라투라), 스톤 속 방대한 우주의 역사(매그니튜드), 자연 그 이상의 자연(쉬르 나뉘렐) 등 형이상학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주얼리 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2021년 까르띠에에는 오감 외 여섯 번째 감각인 '직감'을 주제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까르띠에 씨쥬 썹을 선보인다. 까르띠에 씨쥬 썹 컬렉션은 신비로운 컬러와 다양한 빛을 발산하는 젬스톤 고유의 매력을 그대로 담았으며 정교한 주얼리 메이킹 기술을 바탕으로 특유의 그래픽 패턴과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해 착시와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신비함을 강조한다. 모험 정신과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이 하이 주얼리 피스들은 피부에 닿으면 새 생명을 얻고 감각을 매혹시키며 여섯 번째 감각인 직감의 세계로 인도한다.

### UDYANA(우디아나)

1920년 이후 메종 고유의 스타일로 자리 잡은 상징적인 컬러 조합 푸띠 프루티를 반영한 네크리스로, 우디아나는 이 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청원을 뜻한다.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귀하고 컬러풀한 스톤을 활용해 가장 호화롭고 화려한 형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특히 자크 까르띠에가 17세기 무굴제국 황실 공방의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67.7캐럿의 모잠비크산 루비에 새겨 넣은 꽃은 장인 정신과 고도의 기술력을 만나 재탄생했다. 이외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출기로 이뤄진 나무에 세밀하게 연결된 나뭇잎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자연스러움을



1 우디아나 네크리스 스카터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위한 까르띠에 메종의 노력이 담긴 사진들. 2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각기 다른 컬러의 스톤을 조합해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 장인 정신이 담긴 우디아나 네크리스. 3 독특한 에메랄드 피앙으로 빛나는 패브릭을 형성한 알렉산드라 네크리스. 4 사르카라 네크리스를 착용한 까르띠에 메종의 뮤즈, 이란의 에베우이자 뮤지션 골시프테 파르하니. 5 까르띠에 대표 모티브인 팬더의 털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픽셀라주 네크리스. 6 1.62캐럿의 필라 다이아몬드와 1.54캐럿의 각기 다른 컬러의 다이아몬드로 광채를 발하는 코라산트 네크리스. 7 8.20캐럿 루비 세이프 루비가 강렬함을 더하는 판라. 8 18K 화이트 골드와 오픈스, 록 크리스탈과 9.23캐럿 다이아몬드로 체커보드를 완성한 메리데 네크리스. 9 20.51캐럿 바샤인 사파이어가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파헬리아 링.

2

### MERIDE(메리데)

20세기 초 까르띠에가 오픈스를 활용해 선보인 블랙 & 화이트 조합은 메종의 시그니처 스타일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스타일에 체커보드 모티브를 더해 탄생

극대화했으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레드, 그린, 블루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는 주얼리의 전통을 담아 단독 팬던트, 브로치, 네크리스 등 여러 방식으로 착용 가능하다.

### PIXELAGE(픽셀라주)

1914년부터 까르띠에 메종의 대표작인 모티브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팬더를 하이 주얼리 버전으로 재해석해 팬더의 털을 고도의 기술로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직사각형으로 커팅한 컬러 스톤을 간결한 라인으로 완성해 움직일 때마다 그래픽적인 느낌을 발산한다. 특히 총 23.4캐럿에 달하는 매혹적인 골든 토포즈 3개가 팬더의 오묘한 색깔을 강조하며 화이트, 옐로, 오렌지 다이아몬드로 퍼의 두께까지 표현해 하이 주얼리다운 디테일을 보여준다. 구조적인 형태와 그래픽적이고 섬세한 라인, 스톤의 완벽한 투명도로 팬더의 우아함과 신비로운, 강렬함을 표현했다. 그 덕분에 착용했을 때 목과 테를테 라인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팬더를 느낄 수 있다.



3



4



Julien Valton © Cartier

5 6

Iris Vaighe © Cartier

시진 네크리스가 바로 메리데다. 이 네크리스는 2개의 컬러를 대비시켜 시각적, 실제적으로 그 어떤 피스보다 풍성한 볼륨감을 선사한다. 모든 소재를 완벽한 위치에 놓기 위해 까르띠에 메종은 오랜 시간 연구와 분석 과정을 거쳤으며 까르띠에의 탁월한 젬 커팅 노하우를 통해 중앙의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모든 소재의 위치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다. 이렇듯 그래픽 문양으로 완성된 네크리스는 입체적인 인체에 안착하면 더욱 유연하게 피부와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루는 듯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 PARHELIA(파렐리아)

'영원히 감지 않는 눈'이라 불리는 짙은 블루 컬러를 따는 20.51캐럿 센터 스톤의 강렬한 컬러와 매혹적인 광택이 인상적인 링. 센터 스톤 주위에 괄호 형태로 퍼지는 다이아몬드와 비즈-톱 에메랄드 다섯 줄을 세팅해 호수 위에서 일렁이는 잔물결을 연상시킨다. 끝으로 갈수록 층을 이루 아래로 떨어지게 디자인함으로써 착용했을 때 손가락을 감싸는 듯한 유연함을 갖추었다. 마치 건축물 같기도 한 링 디자인과 피스를 분리해 브로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면모에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8



9

컬러, 사이즈, 깊이에서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에메랄드를 찾기 위해 날카로운 안목으로 선별했다. 손으로 짚아내고 폴리싱한 이 스톤들은 기하학적 형태나 둥근 형태, 부드럽거나 각진 형태, 평평하거나 볼륨감 넘치는 형태 등 모든 형태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컬러 에메랄드 비즈를 외이어에 세심하게 꿰매는 작업은 주얼리 메이킹의 대가 까르띠에 메종에서만 가능한 디자인이다.

성한 볼륨감을 강조한다. 특히 아래로 떨어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스톤이 과즙 가득한 잘 익은 베리의 유기적 형태를 연상시킨다. 중앙에 위치한 스톤부터 밖으로 이어지는 작은 스톤들까지 섬세한 투르말린 세팅을 적용해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의 네크리스를 완성했다.

### CORUSCANT(코루산트)

까르띠에 씨쥬 썹 컬렉션에서 다이아몬드의 매력을 보여주는 피스로그 어느 제품보다 유니크한 다이아몬드의 광채와 육감적인 형태를 감상할 수 있다. 이 네크리스에서는 까르띠에 메종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여섯 가지 커팅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트, 팔각,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바게트, 브릴리언트 컷이 바로 그것으로, 다양한 커팅의 다이아몬드들이 하나의 네크리스 안에서 극도의 빛을 뿜어낸다. 다이아몬드가 한데 얽힌 듯한 디자인과 빛의 흐름을 따라 체인처럼 땅아 내린 모습이 그래픽적인 느낌을 선사하며 착용했을 때 유연함과 역동성, 리듬감을 선사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에디터 서경민**

### ALAXOA(알락소아)

목과 테를테에 두른 반짝이는 페브리 같은 모습의 알락소아 네크리스는 다이아몬드 디테일을 가미한 에메랄드 짜임이 돋보인다. 까르띠에 메종 젬스톤 전문가와 디자이너들은

© Sponsored by CARTIER

# Green Effect

어둠 속에서도 더없이 선명하고 분명한 기운,  
그린 컬러를 품은 IWC 파일럿 워치 3 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Big Pilot Watch

빅 파일럿 모델 최초로 다크 그린 다이얼을 적용한 이 파스는 1903년부터 영국 레이싱 카 페인팅에 활용된 레이싱 그린에서 영감을 얻었다. 지름 46mm의 큼직한 다이얼과 원뿔 모양 오버사이즈 크라운으로 헤리티지를 충실하게 반영했으며, 인하우스 칼리버 52110를 장착했다. 2개의 배럴을 통해 7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3시 방향에 자리한 디스플레이가 남아 있는 동력을 알려준다. 내부 연철 케이스가 자기장의 영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해주고,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로터의 작은 무브먼트를 모두 활용하는 펠리톤 와인딩 시스템으로 고도의 정확성을 갖췄다. 6시 방향에 자리한 작은 날짜창으로 실용성도 더했다.

그린 다이얼과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브라운 커피 스킨 스트랩의 조합으로 선보이는 빅 파일럿 워치 1천7백만원 IWC.

● sponsored by IWC



## Pilot's Watch Chronograph

지름 41mm 케이스에 시, 분, 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날짜창으로 컴플리케이션을 풍성하게 채운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은 1994년부터 IWC 파일럿 워치 컬렉션을 이끈 주역이다. 인하우스 모델 칼리버 69385로 구동하며 4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셀프 와인딩 워치다. 칼럼 휠을 장착한 고도의 정밀한 기술을 입증하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 감상할 수 있어 정교한 기계식 워치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 크로노그래프 워치인데도 중심 100m 방수 기능을 갖추어 실용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새로운 이지엑스-체인지 스트랩 클릭 체인지 시스템을 통해 부티크를 방문하지 않아도 커피 스킨과 라버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으로 손쉽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다. 문의 1670-7363 **에디터 이주이**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다크 브라운 커피 스킨 스트랩으로 선보이는 모델 8백40만원, 5열 브레이슬릿으로 개성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 9백40만원 모두 IWC.



# cosmic charms

우주와 천체의 신비를 담은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탄생했다. 수많은 예술가와 과학자, 문인에게 오랜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미지의 세계에 새로운 상징성과 역동성을 담아,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수 레 제투알(Sous les Étoiles)' 컬렉션이다. '별들 아래라는 뜻을 지닌 컬렉션명이 암시하듯 애수와 즐거움, 환희가 공존하는 다면적 매력을 품은 밤하늘이 황홀한 색채와 형태의 주얼리 '작품'으로 거듭난 듯한 컬렉션의 오라(aura)가 시선을 절로 잡아끈다.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매번 뛰어난 퀄리티와 독창성으로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보여준다. 장인 정신을 담아 제작한 품격 있는 비주얼은 물론, 그 안에 반영된 창의적이고 상징적 스토리까지 마주할 기회라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일 때면 늘 반갑고 설렌다. 올해를 공개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수 레 제투알(Sous les Étoiles)' 컬렉션에서는 서정적인 감성이 길게 깃든 우주의 세계가 펼쳐진다. 과거부터 매종에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온 밤하늘과 우주를 주제로 해 탄생한, 한 피스 한 피스가 눈부신 실루엣과 색채의 앙상블을 뽐내는 1백50여 점으로 구성된 컬렉션이다. 반클리프 아펠은 1백 년이 훌쩍 넘는 긴 브랜드 역사 속에서 '자연의 표현에 천착하면서 자연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별, 천체, 우주 등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과 컬렉션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10년 전쯤에는 1870년대 공상과학 소설 분야를 개척한 프랑스 작가 쥘 베른(Jules Verne)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 '레 보야쥬 엑스트라오디네리(les Voyages Extraordinaires)'에서 우주와 창공에 관련된 몇 가지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우주', '천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내세운 '수 레 제투알' 컬렉션이 탄생하면서 천상계와의 친밀한 조우가 또다시 이뤄진 셈이다.

### 우주를 담은 하이 주얼리

단순히 우주에서 영감을 담았다고 표현하기에 '수 레 제투알' 컬렉션은 매우 풍부하고 다면적인 영감의 결실이다. 수백 년에 걸쳐 천문학자, 저술가, 예술가가 우주에 대해 연구하고 표현해낸 다채로운 창조적 결과물을 아우르면서 그 요체를 미학적으로 승화한 컬렉션이기 때문이다. 쥘 베른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De la Terre à la Lune)>부터 1880년 출판된 카미유 플라마리옹(Camille Flammarion)의 <대중 천문학(L'Astronomie Populaire)>이나 17세기 초 활동했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가 집필한 <꿈(Somnium)> 같은 작품은 물론 고대 로마의 문학가 루키아노스(Lucian of Samosata)의 저서까지, 우주를 소재로 삼은 다양한 과학, 소설,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여기에 장엄한 우주의



© sponsored by VAN CLEEF & ARPELS

풍경을 담은 최신 천문학 이미지까지 참고해 반클리프 아펠만의 상징적 인스타일과 자유로운 창의성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컬렉션을 완성했다. 무려 1백50여 점으로 구성된 '수 레 제투알'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 작품에서는 반클리프 아펠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역사적 문헌을 통해 얻어낸 우주에 대한 풍부한 영감과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매종은 자연에서 서정적인 매력과 책이나 문학, 예술의 상상력이 만나는 순간에 항상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쥘 베른과 함께 시작한 모험을 계속 펼쳐 보이며, 그의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던 문학과 과학이 만나는 전통을 탐험합니다." 반클리프 아펠의 CEO이자 회장인 니콜라 보스(Nicolas Bos)의 설명이다. 이렇듯 '수 레 제투알' 컬렉션은 수많은 분야의 참고 자료와 풍성한 영감의 재료를 바탕으로 단지 우주를 관찰하며 해석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마치 움직이는 듯 강렬한 역동성의 미학을 담아낼 수 있었다. 여기에 반클리프 아펠의 주얼리 제작에 관련된 고도의 기술력이 더해져 우주라는 테마가 지닌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구현해냈다. 그 증거는 색감부터 입체감까지 눈부신 반짝임과 생동감을 담아 마치 하늘에 펼쳐지는 원석들의 우주 같은 무한한 풍경을 그려낸 이번 반클리프 아펠 하이 주얼리 작품들일 것이다. **에디터 서정민**

1 플라마리옹 하이 주얼리 워터의 과수 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 2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담은 플라마리옹 워터. 3 매종 고유의 요정 모티브로 재탄생 우아한 감성의 수 레 제투알 컬렉션 데스 메르메르. 4 화이트 골드, 사파이어, 라피스 라зу리, 다이아몬드가 아우라처럼 빛나는 밤의 운하를 표현한 씨플 드 라비 네크리스. 5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대한 별을 형상화한, 탈착 가능한 클립이 장착된 세베르 네크리스. 6 세베르 네크리스의 탈착 가능한 이어링 한 쌍을 착용해 우아한 자태를 자랑한다. 7 태양계 여왕 밴딤이 마치 행성간 행랑상에서 영감을 받은 풀림 드 넬름 링으로 40.52카라의 마다가스카르산 사파이어의 신비로운 블루 컬러를 돋보인다. 8 블루-그린 광채를 내는 태양계 중심을 자는 41P 혜성을 모티브로 한 뉴에 데메르 네크리스. 9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의 이름을 딴 네크리스로 중심에 자리 잡은 50캐럿이 넘는 스마일스톤 '헬로 사파이어'가 광채를 극대화한다. 10 신비로운 토성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사투르 클립. 반클리프 아펠만의 노하우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11 75%까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헬리 혜성의 궤도에서 영감을 받은 링으로, 중앙의 옐로 다이아몬드를 분해해 디자인이 비슷한 링에 매치할 수 있다.

### interview with Nicolas Bos

(니콜라 보스, 반클리프 아펠 CEO 겸 회장)



유서 깊은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DNA, 충만한 장인 정신이 깃든 미학적 완성도와 정교한 아름다움, 희소 가치... 럭셔리 세계에서 이렇듯 수사적인 표현은 하나하나 곱씹지만 아무 대나 붙일 수 없지만, 자칫 진부한 마케팅 용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옥석을 가려낼 방법은 어찌 면 하나뿐일지도 모르겠다. 럭셔리 오브제인지 예술 작품인지 모를 만큼 입도적인 예술적 오라(aura)를 담은 실체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극소수 브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감일 텐데, 하이 주얼리의 세계에서 반클리프 아펠은 그처럼 독보적인 입지를 지닌 대표 주자로 손꼽힌다. 1906년 탄생한 이 브랜드가 명불허전의 위상을 누리는 이유는 보는 순간 압도되는 감각적 매혹을 선사하는 작품성과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창조적 영감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역량이 놀랄 정도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범상치 않은 오라를 느끼면서 그 안에 담긴, 창조적 영감이 풍부하게 여러 있을 법한 이야기를 공명하게 만드는 재주가 빼어나다. 특히 반클리프 아펠의 수장 니콜라 보스(Nicolas Bos)가 이야기보따리를 펼칠 때면 그 매혹이 배가되기도 한다. 오랜 세월 현대미술의 수호자로 명성을 쌓아온 까르띠에에 현대미술자산을 커리어의 출발점으로 삼은 뒤 반클리프 아펠과 함께한 세월이 20년을 훌쩍 넘긴다는 데서 알 수 있듯, 예술적 인품과 인문학적 자식, 럭셔리에 대한 이해가 워낙 출중한 인물이다. 올해를 공개된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수 레 제투알(Sous les Étoiles)'이 우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비방을 했기 때문일까.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천문학자이자 작가 카미유 플라마리옹과 공상과학 소설의 대부인 통하는 쥘 베른 등 이번 컬렉션의 배경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준 인물들에 대한 애를 한다는 순간 그의 눈빛은 잠시나마 천체의 미스터리와 과학적 탐험에 빠져 지내던 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 유난히 반짝거렸다. 다음은 니콜라 보스 회장과 좀 인터뷰로 나는 일문일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글 서정민**

**Q1 수 레 제투알 컬렉션이 특별한 이유와 기존 컬렉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매종은 과학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천체물리학자와 작업해왔고, 우주와 창공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우주를 바라보는 반클리프 아펠 매종의 시각 역시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우주를 보면 그저 흑색 배경에 하얀 별이 떠 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흑색이나 진한 피란색 바탕으로 하늘을 표현했고, 백색 다이아몬드로 별을 표현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새롭게 이미지를 쓰고 기록함으로써 20~30년 전 하늘을 바라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은 색채와 움직임과 복잡한 모양으로 가득 찬 것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주얼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우주는 미지의 영역이라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는 그 세계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자들과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컬렉션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자벨 그르니에(Isabelle Grenier)라는 프랑스 천체물리학자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고, 과학적인 지식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2개의 갤럭시가 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한 '안테나(Antennae)' 피스들을 예로 들지만, 총동료 어떤 형태와 색상이 생겨났는지 설명해줬고, 또 어떠한 화학반응이 있기에 어느 정도의 열이 발생하고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등의 지문도 해줬고요. 무한한 자연에 스토리를 덧붙이고, 여기에 과학적인 현상을 접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한국에서도 SF 소설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한 작가인 쥘 베른과 달리 카미유 플라마리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번 컬렉션에서 천체적으로 창조적 영감의 비탕이 된 그가 천문학자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로 존재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미유 플라마리옹(Camille Flammarion)은 쥘 베른보다 덜 알려진 과학 자자이지만 대중을 위한 과학 서적인 <대중 천문학(L'Astronomie Populaire)>을 집필했습니다. 19세기 당시 천문학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집필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문학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는데, 그에 있어는 드로잉이 정말 아름답지요. 쥘 베른도 플라마리옹의 책에서 영감을 받아 공상과학 저서를 썼습니다.

**Q4 우주의 서정적인 매혹을 담았다는 맥락에서 이번 컬렉션과 연관된 스토리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이 있다면요?** 저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감명을 받았지만, 특히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라는 과학자가 쓴 소설이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케플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50년 전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주장한 16~17세기 중 요한 과학자입니다. 당시 이런 사상은 교회에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그는 <꿈(Somnium)>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통해 그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지요(사후에야 발간). 그의 업적은 3백년 뒤 카미유 플라마리옹이 세운 압축되고 비슷합니다. 바로 과학에 상상력을 덧입혀 사람들의 이해를 돕은 것인입니다. 케플러는 자신의 책에서 꿈을 꾸다가 일어나 주인공이 우주를 관찰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Q5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또는 눈여겨볼 제품을 꼽는다면요?** 모든 제품이 컬렉션 전체를 이루는 퍼즐의 조각이라 다 좋기는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애'를 꼽자면 '부클레 코스믹(Boucle Cosmique)' 네크리스를 택하겠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의 전통을 제대로 표현하면서도 현대적인 시도를 새롭게 접목한 목걸이인데, 매종이 자랑하는 고유의 미스터리 세팅(1933년 특허받은 독특한 상징적인 기법으로 스톤을 자랑하는 하얀의 금속이 드러나지 않도록 연출해 진구머니 스톤이 더욱 돋보이는 기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했고, 쿠티어의 전통도 살렸기에 수 레 제투알 컬렉션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빼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피스이기도 합니다.

**Q6 혹시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적용한 이러한 (매력적인) 테마가 일반 주얼리 컬렉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반클리프 아펠은 하이 주얼리뿐 아니라 일반 주얼리 제품 라인에서도 자연을 꾸준히 표현해왔습니다. 울퉁불퉁한 '럭키 스프링(Lucky Spring)' 컬렉션도 자연, 숲, 장엄 일출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천체를 포함한 자연이라는 모티브를 매종은 주얼리 컬렉션에서도 계속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샤넬의 이드라 뷰티 라인은 수분 관리에 집중한다. 그 핵심은 바로 화이트 까멜리아에 있다. 프랑스 남서부 고지크 자함에 위치한 샤넬 오븐-스키 연구소는 화이트 까멜리아를 직접 재배한다. 산성함을 위해 손으로 까멜리아를 수확한 후 바로 추출 선체에 보내며, 이후에는 활력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 저온에서 추출한다. 추출한 성분은 수분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그니처 성분 까멜리아 알바 PFA로, 피부의 이상적인 수분 레벨을 되찾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까멜리아 알바 PFA와 최상의 조합을 이루는 블루 진저 PFA도 이드라 뷰티 라인의 핵심 성분이다. 마다가스카르 블루 진저에서 추출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보호 능력을 강화한다. 두 가지 성분이 조화를 이루는 이드라 뷰티 라인은 피부에 완벽하게 작용해 수분 관리를 위한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 촉촉하고 상쾌한 피부 빛

고른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하루 세 끼 식단을 다르게 먹듯, 건조한 피부에도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고루 사용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드라 뷰티 컬렉션의 네 가지 라인업으로 관리하는 스킨 라추얼과 함께라면, 새벽녘 이슬을 머금은 듯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얻을 수 있을 것. 먼저 깨끗하게 세안한 피부에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리퀴드 에센스를 발라 스킨케어의 첫 단계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품은 고농축 까멜리아 마이크로 버블 성분을 함유한 스킨케어 워터로, 버블 속 까멜리아 세포 활성 성분이 순수한 상태로 보호도도 피부에 닿는 순간 활성화된다. 가볍고 촉촉한 젤 타입의 리퀴드 에센스가 피부에 신뜻하게 흡수되어 촉촉함을 남기고, 다음 단계에서 유효 성분을 흡수하기 위한 최적의 피부 상태를 만들어준다. 무알코올 성분에 계면활성제를 배제한 포물러로 민감한 피부에도 완벽하게 작용한다. 다음은 이드라 뷰티 까멜리아 글로우 컨센트레이트로 피부를 매끄럽게 정돈할 차례. 이드라 뷰티 라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제품은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분연의 탄오버를 촉진하는 집중 트리트먼트로,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매끄럽게 정돈함으로써 촉촉하고 빛나는 광채를 연도해 준다. 샤넬에서 연구를 거듭해 새롭게 개발한 까멜리아 이스트 추출물이 수분 부스터 역할을 한다. 피부에 순하게 작용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 성분은 샤넬이 특별히 개발한 성분으로, 피부 분연의 보습 능력을 강화하고 보습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특별함은 3% 농도의 세 가지 AHA 엑스플리메팅 컴플렉스에도 담겨 있다.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분연의 탄오버를 촉진해 피부를 매끄럽게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준다. 2방향식 밀어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목까지 내려가며 부드럽게 발라줄 것. 단 한 달만 집중 사용해도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품이다. 이어서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 한두 방울을 손끝을 이용해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펴 바른 뒤 양손으로 감싸 완벽하게 흡수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강력한 수분 부스터와 플럼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질층에 매우 유익한 지용성 활성 성분인 까멜리아 알바 OFA가 고농축되어 있어 피부와 탁월한 친화력을 자랑해 수분 증발을 막는 보호막처럼 외부 공격을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크림으로 수분 & 탄력 리추얼을 완성한다. 피부에 스며들기 직전까지 순수한 상태로 활성 성분을 보전한 마이크로 버블이 피부에 바르는 순간 깊은 수분감을 통해 편안함을 선사하고, 보습 효과를 강화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여기에 마다가스카르 블루 진저에서 추출해 2배로 농축한 항산화 성분인 블루 진저 PFA가 피부를 보호하고 분연의 보호 능력을 강화해준다. 수분으로 편안해진 피부는 생기와 활력을 갖추고, 하루 종일 밀도 높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에디터 리뷰**

(왼쪽부터)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리퀴드 에센스 150ml 13만9천원, 이드라 뷰티 까멜리아 글로우 컨센트레이트 15ml 12만원,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 30ml 13만원,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크림 50g 12만원. 모두 샤넬. 문의 080-332-2700, chanel.com

# fresh hydration

여름철에는 강한 햇빛 때문에 피부 타입을 막론하고 건조함의 절정을 경험한다. 건조는 노화까지 앞당기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철저한 수분 관리는 필수. 피부 갈증은 해소하고 장벽을 강화해 피부 보호 효과를 겸비한 샤넬 이드라 뷰티 네 가지 라인업과 함께라면, 여름철 수분 관리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ponsored by CHANEL

# comfort zone

편리한 홈 스파를 도와주는 스마트한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스와스 퍼펙션 RS-28 리추엘에이션 시크릿 마스크 프리커서 한 병을 플리켄 성분의 마스크 시트에 바른 다음 1분 후 사용하면 유효 성분이 골고루 피부에 흡수되며 진정 작용을 한다. 맥을 사용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포스트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면 피맛같이 정돈되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광채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일주일당 한 번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마스크 시트 4ea, 프리커서 50ml X4ea, 포스트 트리트먼트 2ml X4ea 85만원. 문의 051-745-1202

**이슬 브레스리스** 바티민 E가 풍부한 보디 트리트먼트 오일, 깨끗하게 세안한 피부에 1티스푼 정도 도포해 목부터 발까지 마사지하며 발라주면 된다. 또는 보디 밤에 몇 방울 떨어뜨려 섞어 사용해도 좋다. 근육통 완화 효과가 탁월하며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건조한 피부를 되살려준다. 100ml 39만원. 문의 1800-1987

**시클리 더크림 230**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헤어드라이어, 스테이틀러, 컬링 아이론 등이 뿜어내는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만들어준다. 스타일링 기기 사용 전 젖은 모발 또는 건조된 모발에 바르고 사용하면 끝. 최대 230°C의 열로부터 모발을 지켜

줄 뿐 아니라 영양을 공급해 부드럽고 살만한 광채까지 살아준다. 150ml 11만원. 문의 080-549-0216

**랑콤 압출된 젤 클렌징 폼** 매일 아침자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신타한 젤 타입 클렌저로, 미세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일어나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며, 세안 직후에도 피부에 광채와 윤기를 선사한다. 다마스쿠 로즈 오일과 프로방스 정지꽃 추출물을 함유해 건조함 없이 세안할 수 있고, 다음 스킨케어 단계를 위한 완벽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준다. 125ml 9만2천원. 문의 080-022-3332

**바이레드 우즈 캔들** 숲속 여행을 테마로 한 캔들. 향을 맡는 순간 마치 숲 속이 가득한 스웨덴의 웅장한 숲을 사모를 가느듯 느낀을 받는다. 달콤한 리즈베리로 사적해 재스민 페플과 투스키가 가득 조화를 이루어 풍부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향을 풍긴다. 프랑스에서 수공예 글라스의 코트 심자를 이용해 만들었다. 240g 12만원. 문의 02-3479-1688

**글레드보 보메 사-비티드 사본** 기존 제품보다 한층 더 농축해진 캐시미어 거품이 모공 속

피지와 메이크업 잔여물을 부드럽고 자극 없이 씻어내 다음 단계의 유효 성분이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수직입으로 만드는데, 제조에만 5개월 넘게 소요된다. 맨 얼굴일 때는 얼굴을 적시고 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얼굴을 적시지 않고 사용한다. 100g 14만5천원. 문의 080-564-7700

**실론 페이스타이트 3.0** 리프팅 효과와 함께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주파 피부 관리기. 피부 속 탄력을 채우고 주름을 개선하는 바이올라 고주파 에너지(EF). 플라센트를 생성하는 LED 레드라이트, 그리고 고주파 에너지와 레드라이트를 피부 속 깊이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열에너지를 함께한다. 유무선 사용 가능한 듀얼 제품이라 더욱 실용적이다. 55만원. 문의 080-246-1234

**라쉬 베스발 더 이클 엔더 듀스** 인렛 쿨링 가루와 김 추출물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밤으로, 요조에 물을 받고 제품 1개를 녹이면 끝. 인욕 후 티월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진 것이 느껴진다. 인두공 보트를 탄 올메미와 고양이 세트 245g 2만2천원. 문의 1644-2357 **에디터 리뷰**



# save his skin

후끈 달아오른 피부를 위한 가볍고 산뜻한 그루밍 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오얏 헬시 쿠션 템** 매끈하고 보습보충한 피부 표현은 물론 SPF 50+ PA++++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실용적인 쿠션 아이템. 스킨링, 핀테일, 베타글루칸 등 풍부한 스킨케어 성분이 프리미엄 베이스 메이크업을 구현한다. 15g 4만5천원. 문의 02-6204-1962 **몰도 포드 폼 앤 하이드레이트링 립밤** 사버터와 스위트 이몬드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 천연 오일과 영양 성분을 이상적으로 배합했다. 부드럽게 빌러 입술에 촉촉한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윤광을 부여한다. 7g 4만8천원. 문의 02-6971-3211 **아쿠아 디 파르마 콜로니아 에센스** 아프라티 워터는 발 심플한 시트러스와 신선한 우디 향을 품은 애프터 셰이브 밤. 무알코올 성분으로 흡수가 빠르고, 하임부론신과 하이드록시사트로네올이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날카로운 면도날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킨다. 100ml 10만5천원. 문의 02-6905-3568 **샤넬 보이 드 샤넬 포타피앙 젤 모이스처라이저** 글리세린과 하임부론신을 함유한 포물라가 온종일 촉촉한 수분감을 유지하게 해주고, 피부 항산화에 효과적인 그린 커피 PFA 추출물이 피부 자가 방어 시스템을 촉진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50ml 12만6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비오렘 울트 포스 수프림 원 에센스** 끈적임 없이 가벼운 워터 타입의 에센스. 시나지 성분인 리피프 플랑크톤 추출물이 진정 효과와 보습감을 선사하고, 아데노신이 주름 개선과 탄력을 강화한다. 아가베 L, 오코플라유카 추출물이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고 피부 방어력을 강화하는 등 10가지 효과를 단 한 병으로 케어하는 스마트한 아이템. 100ml 8만원. 문의 080-022-3332 **디올 뷰티 소바뉴 에프티 웨이브 로션** 신비로운 개성과 강렬한 상대성을 선사하는 우디 향이 은은한 진정을 남기는 아이템. 촉촉한 워터 제형이 세이밍 후 자극받은 피부를 깨끗하게 진정하고 보호해준다. 100ml 8만원. 문의 080-342-9500 **이슬 디올 엷지 레이저 면도날** 고밀도 손잡이와 크롬 도금 처리한 면도날, 그리고 헤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깔끔한 면도를 돕는다. 면도 초보자나 숙련자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수염이 난 방향이나 대각선으로 짧은 스트로크를 주어 면도를 해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디올 엷지 레이저 면도날 10pcs 포함 11만3천원. 문의 1800-1987 에디터 이주이

# into the scent

향으로 공유하는 젠더리스 향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이레드 믹스드 에모션 오드 파퓸**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시대의 격동성과 혼재되어 있는 다양성 같은 추상적 개념을 담은 향. 마테, 실론 홍차, 비아 울렛 잎 등으로 만들어 뿌리는 순간 진하게 우러난 차를 마신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100ml 33만원. 문의 02-3479-1688

**프레쉬 헤스페리데스 오드 파퓸** 신선한 지용을 통해 로넬로 듯 싱그러움과 신선한 향으로,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는 남녀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천연 지용에 과즙이 풍부한 0킬로아산 레몬을 첨가해 달콤생채를 한 느낌을 닮았으며 베르가모트와 같은 풀 노트를 추가해 상쾌함을 배가했다. 100ml 15만5천원. 문의 02-3479-6202

**조 말론 런던 라임 바닐 앤 민트** 조 말론 런던의 시그처 향수. 카리브해의 산들바람에 실려온 듯한 라임 향에 특색 있는 바닐라와 향기로운 백리향을 더해 남녀노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클래식한 향이다. 100ml 19만2천원. 문의 02-6971-3228

**메종 마르자갈라 레플리카 레이저 스테이 모닝 오드 파퓸** 누구나 좋아하는 깨끗하게 세탁한 이불에서 느껴지는 상유 유연제 향을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릴리와 화이트 마스크로 허인 코톤의 느낌을 표현하고, 아이리스로 따스로운 햇살의 느낌을 담았다. 100ml 17만5천원. 문의 02-3443-2772

**담타크 오드 파퓸** 1920년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선보이는 차머 에센셜 컬렉션으로, 일리오는 그리스어로 태양을 뜻한다. 태양이 비추는 지중해 연안을 모티브로 탄생한 이 향수는 산호장 열대인 프리클리 페어를 메인 노트로 베르가모트와 아이리스에 재료를 가미해 신선함과 화사한 느낌을 동시에 선사한다. 100ml 18만2천원. 문의 02-3479-6049

**에르메스 윤 자르렝 수르 라리온 오드 파퓸** 벽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베니스 정원을 그린 파키지 일러스트처럼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비닐스로운 향을 그려냈다. 부드럽고 신선한 풀과 꽃 향 사이에서 화사하게 느껴지는 나무 향이 특징. 100ml 16만8천원. 문의 02-310-5174

**샤넬 뷰티 레 조 드 샤넬 파라-에드바르** 기르메르 샤넬이 사랑했던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는 레 조 드 샤넬 컬렉션의 다섯 번째 향수로 대저의 신비로운 향이 느껴지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정서를 담았다. 상쾌한 주니퍼 베르와 스모카한 후추 노트는 베르베르를 믹스에 독특하고 중성적인 매력을 완성한다. 125ml 19만5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성장민







“LET TIME FLY. YOU MIGHT  
GET TO AN EXCEPTIONAL  
PLACE.”

YIQING YIN,  
HAUTE COUTURE CREATO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ÉGÉRIE.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 NOT MANY.